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9월 2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명절을 되세요!

자랑스러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동지들께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을 만날 때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제나 씩씩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시는 동지들이 자랑스롭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소지해야 할 중요한 품목이 되었습니다. 사회(물리)적 거리두기는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대를 만드는 건강한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공감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는 결의대회 등의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벌에게는 코로나19가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언제나 순종과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재벌에게는 코로나19가 위기이면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핑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 좌절됐던 노동개약을 들고 나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정부여당은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개약을 입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부 떠넘기는 계획을 사업장 임·단협 교섭에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여당과 재벌은 코로나19를 무기로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그랬듯이 우리 노동자는 수많은 들끓고 피어나는 민들레의 생존본능처럼 꺼지지 않는 투쟁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추석명절은 코로나19로 고스톱을 치던 예전의 추석명절의 향수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명절 이후 투쟁의 현장에서 씩씩하게 뵙겠습니다.

지부장 김정태 드림